

# KOSEB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Newsletter 2024



## ■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님들께!

2년 전 한국환경생물학회 18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제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한국환경생물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과 대응방안 제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의 40년이 넘는 전통과 13,000명의 탁월한 학식을 가진 회원분들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제 임기동안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은 김주필 교수님께서 환경생물학 발전을 위해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시어 제정해 주신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동료이신 김주필 교수님께서 금년 9월 4일 영면하셨습니다. 학회를 위해 끝없이 단소리와 쓴소리를 해주신 김주필 교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환경생물학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와 특성을 존중하는 열린 학회입니다. 환경생물학을 연구하는 모든 회원과 연구자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생물학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학회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어렵고 힘든 학회 업무를 같이 해 준 부회장님과 학회임원분들, 그리고 목미화 사무국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모든 학술대회에 헌신적으로 참석하시어 학술대회를 빛내 주신 전임회장님들도 감사합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한양대학교 김백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가 국내를 넘어 국제수준의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한국환경생물학회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해인만큼 많은 준비와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차기 회장님의 훌륭한 지도력과 더불어 탁월한 학술적 역량을 갖추신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세계 최고의 학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조기종**

## Contents

• 회장 인사말	1
• 신임회장취임사	2
• 2023 학회소식	2
• 2023 수상소감	7
• 2023 기관 및 기업소식	13
• 2023 특별기고	20
• 학회회원동정	21
• 2024 학회사업계획	23
• 학회역사	23
• 임원명단	23
• 공지사항	24



**한국환경생물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발행일] 2024년 1월 11일

[발행처] 한국환경생물학회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빌 1514호

Tel. (070)8825-5449 E-mail. koseb@naver.com Homepage. http://www.koseb.org/

[발행인] 조기종

[뉴스레터편집위원장] 이두형

## ■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한양대학교 김백호입니다. 우리 학회는 1981년에 창립된 후, 불혹을 지나는 동안 여러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내외적으로 한국환경생물학회가 명실상부한 학술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 역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촌은 현재 제6 멸종기에 진입하여 지구 전역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도시 문제, 식량부족, 에너지 소비증가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선진화와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우리 학회는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최근 ESG와 SD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학회는 다양한 학술행사와 연구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회원여러분의 연구 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통해 학회의 발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진행될 행사와 연구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회원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연구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디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일  
한국환경생물학회 신임회장 김백호

## ■ 2023 학회소식

###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침입외래종의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s of Invasive Alien Species)’의 주제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아름다운 해변도시 강원도 양양의 솔비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및 10개의 특별세션(69편)과 신진(10편), 학생구두(22편)와 포스터발표(59편) 등 총 16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총 236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직전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76편을 두배이상 상회하였고, 참석인원도 100명이상 증가하여, 매우 성공적인 개최로 기억된다. 특히 기조강연 및 특별세션을 통해 호주 CSIRO(호주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 소속의 외래생물 생물방제 연구팀 8인의 특별 교류가 있었으며, 이는 호주 CSIRO와 한국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성사되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Dr. Andy Sheppard





는 CSIRO의 Chief Research Scientist로 외래생물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외래생물분야 선도국인 호주의 외래생물관리 관련 정책 및 성공사례, 외래생물관련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한 세계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었다. 또한 특별세션을 통해 국내 외래생물 관련 다양한 연구자들의 최신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본 세션을 통해 환경부 이정원 사무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가하여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본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외래생물 분야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향후 연구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삼육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본 춘계학술대회를 빛내 주었다. 모든 회원께서 귀중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빛난 신진연구자 최우수 발표는 임영균, 정민형 회원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외 우수논문 4편이 시상되었다. 학생구두발표 최우수는 윤지남, 최희규 회원과 우수(2) 및 장려(4인)상이 수여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윤지남, 위준 회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4인) 및 장려(10인)상이 각각 시상되어 학회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많은 참가인원과 발표 등을 무리없이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신 조기종 회장을 비롯하여 이두형 총무위원장, 박익주 부학술위원장 및 목미화 사무국장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경국립대학교 홍선희 (학술위원장)

## 제78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지난 2023년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78회 한국생물과학협회(생과협, 회장 정규영) 정기학술대회가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인문대학 및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생과협은 생물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소속 학회들 간에 상호보완 및 협력을 유발하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생물학계를 대표함으로써 생물



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8개 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복원생태학회, 한국진화학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환경생물학회는 2017년 가입하여 환경생물학 관련 정책 제안, 도서발간 및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본다: 생물학의 통합 연구와 이의 활용”을 주제로 초청강연, 학회별 학술심포지엄,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를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학술대회는 첫날 오후 인문관에서 진행된 “신진과학자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3분의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사인 Axel Meyer 교수 (University of Konstanz, Germany)는 “The Genetic Basic of Adaptations and speciation in Crater Lake Cichlid”를 주제로 유전체 기반의 종의 적응과 분화를 소개하고, 두 번째 연사로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한국 수목원의 지난 100년 성과와 미래전망”을, 세번째 연사인 서울대 강창구교수는 “Macroevolutionary Patterns of Hidden Colour evolution in animals”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포스트발표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 학술대회는 3명의 기조강연과 개별 학회 학술대회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뜻깊게도 한국환경생물학회장이신 고려대 조기종교수의 관정동물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기조강연으로 William Friedman교수 (Harvard University, USA)는 “Who Discovered Evolution?”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표하였고,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손연아교수(단국대)는 “The Direction of Life Science Educa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in a hyperconnected Society”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명명법 및 국명, 생물학 용어에 관한 심포지엄 기조강연으로 Kanchi N. Gandhi교수

(Harvard University, USA)의 “Taxonomic Classification, the Queen, and Nomenclature, the Servant of Biology”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개별 학회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한국환경생물학회는 “환경생물학에서의 분석과학 기술 및 응용”을 주제로 총 7분의 연사가 다양한 환경생물소재에서의 분석기술과 연구접근방법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셋째날 오전도 개별 학회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한국환경생물학회는 “환경생물학”을 주제로 9분의 연사가 환경생물학 관련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Brian M. Wiegmann 교수(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의 “Understanding biodiversity in Time and Space: Flies, Mosquitoes and the Insect Tree of Life”,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의 “From Agreement to Action: Build Back Biodiversity”, 강혜순 교수(성신여대)의 “How can We live in Harmony with Nature in a Big Transformational period for Ecology?”를 주제로 3분의 기조발표와 김준교수(충남대), 허태임(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장이권교수(이화여대)와 이은희(과학책방 갈다)가 진행하는 과학과 문화 토크쇼: 호모 사피엔스와 사람의 만남: 학술적 용어와 일상적 언어의 교차점에 관한 토크쇼와 시상식으로 2023년 생과협 정기 학술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2년 9월 창립되어 새롭게 회원학회가 된 한국진화학회가 매우 의욕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 학회가 좀 더 풍요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차기 주관 학회가 되는 한국환경생물학회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할 수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센터장 서중복  
(부회장, 한국생물과학협회 이사)

###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는 “해양-담수 생태계의 건강성과 환경생물학의 역할 (Role of Environmental Biology in Aquatic Ecosystem Health)”을 주제로 10월18 - 20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아름다운 제주(소노캄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발전하고 있는 한국환경생물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로서, 총181편의 발표가 2박3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University of Washington의 James R. Karr 교수님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지현 박사님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특별강연 2편, 특별세션 강연 59편, 일반 및 신진 연구자 구두발표 12편, 학생 구두 발표 20편, 포스터 발표 86편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활발한 학술교류와 더불어 2023년 9월 4일 별세하신 구양 김주필 교수님에 대한 뜻깊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故 김주필 교수님은 우리 학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2022년 “구양 환경생물학상”을 제정하시고, 운영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출연하셨으며, 항상 학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학생 회원들의 참여와 발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포스터 발표를 “Student Mixer”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며, 학회장님





및 임원진의 후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 의지가 잘 전달된 행사였습니다. 2023년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며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우수심사위원 공로상, 신진연구자 구두발표, 학생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이두형(총무위원장)

## 제2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식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후기를 쓰기 전에 짧은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4일(월) 김주필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수님께서 ‘한국거미도감’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 들어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몇 차례

전화로만 말씀드렸고, 5월 5일(금)에는 조기종 회장, 계명찬 교수, 저와 함께 교수님을 만나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일자, 장소, 참석범위,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고 6월 23일(금) Presesident Hotel에서 기념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일 우리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가 모였는데 정작 “김주필 교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출판기념회 하루 전날(22일) 저녁 고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안계셨지만 너무나 급작스런 일이기에 취소나 연기가 어려워 출판기념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차도가 좋아져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여 곧 완쾌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비보를 받았습니다.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빈소에 들러 그동안의 감사와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9월 6일(수) 발인 후 경기도 화성시 창곡리 김해김씨 김유신 장군을 배향한 금산사에 안치되었습니다. 김주필 교수님! 그동안의 수고로우심에서 벗어나 천상낙원에서 영원한 안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주필 교수님은 1943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하시어 6.25전쟁 중 1.4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하여 만 80년을 사셨습니다. 남한으로 오시어 인천 산곡초등학교, 경기도 여주중학교,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다니신 점으로 많은 이사로 안정된 생활을 못하신 듯합니다.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졸업 후 대학입학 학원가에서 소위 일타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돈을 벌어 대영EMI학원을 인수하셨기에 혹자는 학문보다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김주필’은 피난민 생활, 입주과외로 대학에 다니는 등 시대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한 몸부림이 돈이었을 겁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학문과 연구는 끝내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시고 유명 학원과 명강사로 돈방석이 보장되어 있는 세계를 박차고 교수로 옮겨 교육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이 땅에 불모지와 다름없던 ‘거미’를 연구하여 기초과학을 일궈내신 과학자이십니다. 생물학에서 분류학은 순수 기초과학으로 예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취업이 안



제2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식 중故 김주필 교수 추모 묵념



한국거미도감 출판기념회 단체 기념사진

되어 배고프고 힘든 학문분야였습니다. 김주필 교수님께서 ‘거미’를 대상으로 순수 분류학을 전공하여 창업과 접목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학자라고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중턱에 ‘주필거미박물관’을 세워 어린이, 각급학교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간과 체험 공간을 만들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등 순수과학을 산업계에 접목시키신 훌륭한 학자이자 시대를 앞서 개척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제7대 회장을 지내신 구양 김주필 교수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구양환경생물학상’을 제정하여 중견 환경생물학자에게 매년 1명을 선발하여 상금으로 1,000만원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수행하였습니다. 1차는 이해 당사자인 1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각자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 3인의 이력서 및 학회의 기여도, 최근 10년간 연구실적,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2편, 추천서 등을 꼼꼼히 살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간사에게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차 심사는 9월 15일 학회 사무실에서 신청자별 1차 심사결과의 합산 결과를 토대로 제1회 수상후보자 선정 시 문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상명대학교 기장서 교수를 제2회 수상후보자로 선정하였고, 즉시 학회 회장님께 통보하였습니다. 시상식은 2023년 10월 19일(목) 소노캄제주에서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시 거행했으며, 총무위원장의 사회 및 개회선언, 고 구양 김주필 교수님을 추모하는 묵념, 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장의 경과보고, 학회장의 시상, 수상자 소개, 이어서 수상자의 학술발표로 제2회 시상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구양 김주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고인께서 생전에 원하셨던 좋은 학회, 더 좋은 학술지로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기억하며 시상식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이진환  
(제9대 회장, 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회 위원장)

## ‘환경생물’ 학술지 Scopus 등재 추진 노력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지대학교 이혁제입니다. 2023년에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신 회원님들과 환경생물 논문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편집위원분과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환경생물 학술지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한해임과 동시에 Scopus 등재 추진을 위해 노력한 한해로 기억됩니다. ‘환경생물’지의 한국연구재단 국내 학술지 평가지표인 2022년 KCI 영향력지수(IF)가 ‘0.53’으로 전체 생물학 분야 총 26종의 학술지 중 5위의 영향력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21년 KCI-IF 0.68(3위)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로서, 환경생물 학술지 위상을 더욱더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저널에 논문 투고 시, 최근 3년 기간에 출판된 ‘환경생물’지 논문을 인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득점으로 학술지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총 63편의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생물’지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을 제정·포상하여 적극적인 심사 참여 및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 첫해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재형 선임연구원, 전남대학교 박기연 박사님, 상지대학교 이황구 박사님께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권 1호



41권 2호





41권 3호



41권 4호

올해는, 무엇보다도 한국환경생물학회 및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과 국제화에 발맞추어 Scopus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copus 등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술지 홈페이지를 전면 영문화하였고, 아울러 학술지 관련 세부 정보 및 투고 관련 가이드라인 게시를 새롭게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개편을 위해서 국외기관 소속의 편집위원 11인(한국인 6인, 외국인 5인)을 위촉하였고, 편집위원 소속기관 국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을 위해 국외기관 소속의 편집위원 비율을 높여야 하므로 국외기관 소속의 편집위원 추천은 현재도 계속 접수하고 있으며, 학회 임원 및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구 분야별 편집위원 재구성 및 세부 직위 조직 등 편집위원회 세부 조직화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에 대한 회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도 학술지 발전 관련 논의된 내용들을 편집위원회에서는 하나 하나 실행에 옮기며, 회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에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은 편집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분들의 학술활동에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이혁제 (편집위원장)

## ■ 2023 수상소감

### 제2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수상소감



우리나라 환경생물학 발전에 기여한 중견 환경생물학자를 매년 표창하기 위해 2022년 구양 환경생물학상이 제정되었으며, 본인이 2023년 제2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국내 환경생물학 연구와 환경생물학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본상을 수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을 구양환경생물학상 수상자로 추천해 주신 ‘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기중 회장님 및 학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양환경생물학상을 수상하는 데는 ‘해수온 변화가 마비성 패류독소 생성 와편모조류 알렉산드리움 패시피쿰의 삭시톡신 합성 및 관련 유전자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22)’과 ‘해양의 질산염 변화가 독성 와편모조류 알렉산드리움의 마비성 패류독소 합성에 미치는 영향 (Harmful Algae 2023)’의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해양의 독성플랑크톤에 의한 패류독소 발생을 분자생물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향후 패류독소 관리방안에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성과가 나오기까지 꾸준하게 연구를 수행해준 김한솔 박사, 왕휘 박사 및 상명대학교 해양생명공학연구실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1996년 한국환경생물학회 학생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총무이사(2014-2015), 생태분과위원장, 편집위원, 부회장(2019~현재)을 역임하면서 학회와 학술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해조류의 대발생 및 독소생성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패류 독소와 수산물 관리방안에 관한 언론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수행된 환경생물학 연구와 학회에 대

한 애정들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본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활발한 환경생물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환경생물학자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양환경생물학상을 제정해 주신 故 김주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권위 있는 상으로 도약할 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여러분들도 우수한 연구성과와 학회봉사를 통해 본 상의 수상자가 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기장서  
(부회장, 환경생태분과위원장)

### 제33회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소감



본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2022년 “환경생물” 40권 2호에 발간된 “MaxEnt를 활용한 기후변화와 토지 피복 변화에 따른 멸강나방 및 흑명나방의 한국 내 분포 변화 분석과 예측” 논문으로 수상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환경생물학회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23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최근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생물 분포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의 발생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함께 토지 이용의 변화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비래해충의 미래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

고, 다양한 해충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미래 해충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입증된 사례로 향후 필요한 실험 데이터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경상국립대학교 식물의학과 곤충생태학 실험실 실원들인 박태철, 엄소은, 손기문 학생들과 졸업생인 장호중 연구사가 전남/북 지역의 논 주변을 표본추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형작업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수상자는 수년간 “환경생물”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으며, 매번 훌륭한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구 사항들을 투고했던 논문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우리 학생들의 실험과 논문 작성, 그리고 “환경생물” 학술지 심사위원들의 좋은 comments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논문을 추천해 주셔서 수상 기회를 주신 조기중 회장님과 이혁제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박정준

### 2023 환경생물학술상 수상소감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중에는 훌륭한 연구 성과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도, 제가 이번 2023년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수상소감 글을 통해 조기중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와 환경, 생물에 관한 연구에





정진하던 중, 백승호 박사님을 통해 한국환경생물학회 활동 추천을 받았습니다. 처음 참석한 한국환경생물학회에서는 조그만 규모의 학회에서 풍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따뜻함을 느꼈고, 지금은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가 크게 발전해 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학회 해양환경생물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그 바다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 생물이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주는 소중한 식량자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유해한 해양생물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쉽게 관찰이 됩니다. 현재의 이런 상황과 현상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바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인간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공존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리나라 바다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바다가 우리 후손들의 눈에는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고, 기대가 실현되도록,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논문을 우리 학회지에 게재하고, 우리 학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훌륭한 후학도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수여하는 “환경생물학술상” 수상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현호 박사

## 2023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 수상소감

My name is Le Van Ve, and I work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My research focuses on exploring the function of microbial communities in the development of cyanobacterial blooms and investigating effective strategies to control them. I am writing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being honored with the Young Scientist Award at the 2023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I would like to extend my thanks to the selection committee for considering my work, and I am grateful to the entir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for organizing a conference that provides a platform for young scientists like myself to showcase their research. Special appreciation goes to my PI, Dr. Chi-Yong Ahn, Dr. Hee-Mock Oh, and my colleagues and collaborators who have supported me during this time. This achievemen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ir invaluable contributions. I am enthusiastic about the opportunities this recognition brings and am motivated to continue making meaningful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environmental biology. I eagerly anticipate participating in future conferences.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e Van Ve 박사

## 2023 우수심사위원 공로상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23년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에 첫 번째 수상하게 해주신 조기중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논문 심사라는 것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족했던 학문적 지식을 배우게 되



는 기회였으며, 오히려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학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배우는 자세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대 회장이신 한명수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2009년부터 학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기장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환경생태분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학회 활동을 적극 장려해 주시며,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경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소재연구부에서 연구를 수행중이며, 도서·연안으로부터 확보한 다양한 환경미생물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기능 규명을 통해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미생물 연구 분야와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학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에게 “2023년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의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을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수한 논문들이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재형

올해 첫 생긴 “2023년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에 첫 수상자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들이 학회지로 묶여 기록화-정보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 과분한 상을 주셔서 또한 부끄럽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기후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의 노출로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들이 생태계내 생물군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한 소중한 결과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들입니다. 심사를 하며 저 또한 배우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환경생물학회지의 이름으로 정보화 되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더 조심스럽고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조그만 노력이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는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 한분 한분의 땀과 노력으로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땀방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번영과 학회지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합니다.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박기연

먼저 부족한 저에게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학술 및 편집위 활동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한국환경생물학회지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일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조기종 회장님을 비롯한 이두형 총무위원장님, 홍선희 학술위원장님, 이혁제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환경생물학회지 발전에 누구보다도 헌신하시는 김용은 편집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생물학회지는 2022년 기준 KCI 등재





지 중 전체 생물학 분야 영향력지수(IF)가 최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의 크나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Scopus 및 SCIE급 영문학술지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환경생물학회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는 생물학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분들의 다양하고, 훌륭한 결과물들이 환경생물학회지에 끊임없이 투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의 결과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신진연구자 및 후속세대 회원분들의 다양한 학술 활동과 학회지 투고를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심사위원 공로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수상자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이황구

## 2023 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발표 수상소감

### (신진연구자구두발표 최우수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2023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매패류를 이용한 PS 미세플라스틱의 축적 및 배출 연구'라는 제목으로 신진연구자 구두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원 허윤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연구자인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미세플라스틱은 지구 어디에나 존재

하며,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매패류는 인간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 노출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매패류 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축적과 배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고, 환경 및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자분들의 발표를 접할 수 있어 넓은 시야를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참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발표와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허윤위

### (학생구두발표 최우수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Population dynamics of phytoplankton and periphyton following nutrients addition in mesocosm'라는 주제로 학생구두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윤지남입니다. 학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자분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참가했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백승호 UST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임영균 박사님, 이충현 연구원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를 함께 있어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윤지남



안녕하세요.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Genetic, genomic and morphological analyses support the species-level divergence between fat minnow (*Rhynchocypris kumgangensis*) and Deogyu fat minnow (*Rhynchocypris deogyuensis*) from Korea”를 주제로 학생구두발표 최우수상을 수여 받은 상지대학교 황순영입니다.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와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는 이혜재교수님, 조언과 옆에서 애써주시는 분자생태및진화학실험실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발표와 경험들을 통해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연구로 다음 학회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황순영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한경하 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의 연구를 도와주시는 신현호 박사님, 박범수 교

수님, 팀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년간 한국환경생물학회의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보고 많은 공부와 저의 부족한 부분은 반성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생각하여 다음 학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경하

(포스터발표 최우수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소속 홍진솔 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의 잠재 분포’ 연구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연구자로 길러 주신 고려대학교 조기종 교수님께 감사인사 드리며, 연구를 함께 수행한 고려대학교 생태독성학 실험실 동료들에게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라는 학회 회원님들의 격려로 생각하고, 환경생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행한 연구를 발표할 기회 주신 환경생물학회에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려대학교 홍진솔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2022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제주도 연안 지하수 유출과 영양염





플릭스의 변화'라는 주제로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대학교 해양생지화학연구실 석사과정 김희아입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세기와 빈도의 변화는 연안 지하수 유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작은 연안 환경 및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와 수상을 통해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 더욱 자부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 연구를 지원해 주신 제주대학교 해양생지화학연구실 김정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구실 동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의 폭을 넓혀 의미 있는 연구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대학교 해양생지화학연구실 김희아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Characterization of seasonal and spatial phytoplankton community from 2018 to 2020 in the vicinity Dokdo of offshore island, Korea」라는 주제로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이충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학술 교류의 장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발표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술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독도 3개 년도의 미세조류의 군집의 변화를 시공간적 분포에 따라 분석한 연구로서 독도 연구의 특성상 선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백승호 박사님과 임영균 박사님을 포함하여 선상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은 격려와 정진의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과학적 탐구와 연구에 정진하여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충현

## ■ 2023 기관 및 기업 소식

###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 과학기술발전과 연구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수준의 개방형 연구플랫폼,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수준의 개방형 연구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질병, 재난, 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와 환경오염, 에너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 과학기술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과 기초연구의 난제 해결 등을 위해 임무 중심 R&D 체계로 혁신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산업기업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연구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1년 7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27년까지 4 GeV, 피코미터급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구축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가속기 인력·기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가속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 바이오, 반도체, 환경 에너지 분석 과학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센터장 서종복



###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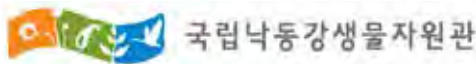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 Resilience Institute, OJERI)은 자강그룹 민남규 회장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해 고려대학교에 10년 간 매년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셔서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OJERI

는 인류와 자연 생태계의 회복탄력적인(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5개 연구단(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물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생태계 지속성, SDGs 넥서스)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학술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OJERI는 이우균 원장(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님의 주도로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92명의 연구진(비전임 교원50명과 연구원42명)이 소속되었으며, 2023년에는 총 65개의 연구과제(총 연구비 약 114억 원)를 수행 중입니다.



에스지바이오(SGbio)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명공학, 병원연구등에 사용되는 각종장비, 시약,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FINEPCR 정식 대리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외산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는 시약제품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transfection, Taq, buffer등 실험에 사용되는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지바이오 윤주병 대표



담수생물자원의 가치를 함께 찾고 만들고 나누는  
최고 연구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NNIBR)은 담수(淡水)생물 분야의 국가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5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와 함께 식물 생물표본 전시와 국내 최초의 미생물 체험관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하천, 호수, 습지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특이 서식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생물종과 국내 미기록 생물종 2,644종을 발굴하고 생물표본 525천점을 수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담수생물 배양체와 추출물 등의 연구소재를 담수생물자원은행을 통해 산·학·연에 제공하고, 담수생물 표본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전환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수생물자원이 다양한 생물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천 소재화하고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주름 및 미백 기능 개선 추출물과 하·폐수처리장의 TOC(총유기탄소) 처리, 가뭄에 의한 식물 피해 경감, 사료 첨가제 개발과 관련된 담수 미생물 소재 등을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담수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연구 수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미생물연구팀장 이미화



환경국립대학교/인문 생태 융합 리질리언스 연구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및 위기의 증가를 이해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자 리질리언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연구, 공공, 환경, 직업, 건강, 공공정책 및 도시부문의 적용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번영과 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킨 효율성이란 사회 가치가 빠르게 적응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며, 어떠한 교란이 오더라도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융합된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이 동일한 기능,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질리언스와 관련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생태분야(복원, 조정, 생태, 토양, 농업, 기후변화 등) 박사급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회생태시스템의 이해, 평가, 처방에 이르는 전 분야를 고루 커버할 수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특히 농업생태계-도시생태계 간 상호작용, 생태복원, 외래종 관리, 토양보존, 탄소저장 등의 연구 주제가 환원주의적으로 각기 연구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 사고에 의한 시스템 내 요소기술로써 고려되며, 시스템의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대응 농업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은 토양 재생을 목표로 다양한 부분의 농업분야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농법으로 개인, 농업단체, 기관 등이 활발한 연구 및 적용을 하는 분야로 본 연구소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 홍선희



##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던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1997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의거하여, 환경정책 및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적 검토기관으로 거듭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건강한 자연,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하고 쾌적한 삶과 같은 국민의 일상 속 환경문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책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연구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정책 선진화를 이끌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및 국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 및 공신력 있는 환경정책 데이터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 싱크탱크 KEI 2030을 비전으로 삼고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기관의 소명을 전 지구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훈



## 안전성평가연구소 예측독성연구본부 바이오시스템 연구실 독성예측, 대체시험법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실

안전성평가연구소 예측독성연구본부 바이오시스템 연구실은 제브라피쉬, 물벼룩, 공배양 세포를 이용한 다중 모델 접근 방식을 통해 유전자 분석, 유전자 편집기술에 의한 형질 전환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신경, 간, 심장 등을 표적으로 광범위한 독성학적 현상을 탐색하고 및 예측하는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High-Content Screening 기반에 독성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을 통해 화학물질, 신약, 농약 등의 독성 예측 기술 개발과 Adverse Outcome Pathways 기반 분자 메커니즘 파악을 통한 독성 원인 파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해당 연구를 통해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다양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밀한 독성 예측 기술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충북대학교 동물계통분류학실험실 “토양성 곤충의 다양성 및 생태연구”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 중에서도, 토양생태계는 높은 생물 다양성과 함께, 생물 및 비생물적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 토양성 생물들은 미소서식처

및 생태적 지위 형성, 영양물질 순환을 포함한 생태계 안정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외래종 유입 및 인간 활동의 결과로 토양생태계는 빠르게 교란되고 있다. 생태계 교란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는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하는지, 이들과 생태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충북대학교 동물계통분류학실험실에서는 보다 발전된 토양생물 다양성의 이해를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신종을 발굴하고 이들의 진화적 역사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토양생태계에 서식하는 곤충군집을 조사하여 이들과 생물/비생물학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연구를 선도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수생태계 개선을 주도하는 친환경 선도기업

(주)광림정공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제작 설비 핵심기술인 각종 산업용 진공 챔버 및 물류시스템용 프레임 등 가공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로 성장 중인 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연구개발 및 신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조 제거용 친환경 생물 소재와 이를 활용한 조류 제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화 하였으며 라만산란기반의 환경센서 등 검출센서류 개발 연구 및 제품 국산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를 모사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스템개발 및 공정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글로벌 연구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MABIK)은 2015년에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국가자산화를 위해 해양생물의 체계적 확보와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21개)을 총괄운영하며 '2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물 기록종 15천여종 대비 61% 수준인 9.3천여종을 확보·관리하고 있다. 또한 MABIK은 유용한 해양생물자원을 개발·보급하여 해양바이오산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ABS) 등 국제협약 대응과 해양생명통합정보시스템(MBRIS), 해양수산생물유전체정보시스템(MAGIC)을 통해 자원 분양,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생물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시관(씨큐리움)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씨큐리움은 LED 미디어아트, 열린 실험실 등을 새롭게 준비하여 '23년 12월 22일에 재개관했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영덕)와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서천)를 각각 2025년과 2027년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주도해 가는 해양생명자원 전문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양바이오 소재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심해저·공해 등의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기술소재 확보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분류실 실장 정현경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는 주로 수서생물, 특히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수생 생태계의 변화, 자원 보전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해충방제 등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합니다.

본 연구소는 수생태환경(호소, 습지)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연구,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처 조성, 분포조사, 포획, 이주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존 및 복원 연구, 해충방제 분야에서는 화학적 처리제의 생물학적 독성평가와 화학적 안정성 검증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태학적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돌발해충 예찰 및 방제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수도2권 거점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에보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는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66년간의 역사를 가진 제약회사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사업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한 문

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동성 어썸 프로젝트(AWEsome project)를 선보이며 에어(Air), 워터(Water), 어스(Earth)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질에 중점을 두어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기살균청정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급식시설의 환경문제에 주목하여 조리흡 특화 공기살균청정기를 개발하여 학생 및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한 수처리제를 개발하여 소형생물 제어제 및 살균, 소독, 살조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토양오염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미생물 비료 및 농업용 친환경 살충 살균제를 개발하여 농업과 식물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통해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동성 어썸 프로젝트를 통해 명확한 철학과 끈기 있는 지속가능한 노력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고농도, 고순도 이산화염소 및 가스 서방출 기술 보유

세진이엔피(주)는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에 특화된 회사로 고농도, 고순도 가스 용존 이온정제 방식의 이산화염소 및 가스 서방출(gas sustained release) 기술을 개발하여 농축수산 및 백색육가공 등 작은 단위 포장용기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진균,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억제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신선도유지제 Freshen program을 시장에 출시,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함으로 생산자와 중개자에게는 이익제고, 소비자에게는 안전 먹거리를 신선하게 제공하고, 기회 및 낭비손실을 줄여 환경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이산화염소는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생물물질 살균, 소독제, 탈취, 표백

제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염소(chlorine)소독 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 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인 THMs, HAAs, HANs 등 을 발생치 않을 뿐 아니라 염소, 오존,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여타 살균제가 제거하지 못하는 곤충강 파리목인 깔다구(Chironomide spp) 등 유충 제거가 가능하다는 수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최근 이슈가 된 정수장 수처리제 살균제로 재조명 받고 있어 세진이앤피(주)도 이의 심층 연구를 다양하게 모색, 진행하고 있다.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미래를 만드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HNIBR)은 도서·연안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국가생물주권 조기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에 기여하고자 2020년 8월 설립된 환경부 산하 생물전문 연구기관이다.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하며, 동·식물·미생물 등 350만 점 이상 수장이 가능한 11개 수장고와 표본 분류, 유전자 분석, 생물자원 유용성 연구가 가능한 12개 연구실, 그리고 전시·교육 및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전시실, 어린이체험실, 교육실 등이 있다. 도서·연안 유래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를 통해 천연물, 배양체 등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하는 업무와 생물자원 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전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다부처 국가생물연구자원 선진화사업으로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및 유용성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을 운영중이다.

도서생물융합연구실 실장 최경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 연구기관이다. 1973년 창립되어 2023년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선진국에 비해 1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KIOST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50년간 12,000여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해양영토 수호 및 이용관리 정책을 위한 전략 마련, 우리 바다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해양 한국의 주치의 역할, 해양경제를 보호·육성하는 해양신산업 기술개발의 최고 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핵심 연구는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1. 대양과 한국해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2. 해양환경 감시 및 관리기술 개발, 3.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 특성 이해 및 대응>, 대양자원 개발 <1. 해양바이오 연구, 2. 전략광물자원 개발 역량 확보로 산업화 진입, 3. 대양 극한 신자원 개발>, 첨단해양공학기술 창출 <1. 해양에너지 실용화 및 항만해양구조물 기술개발, 2. IoT기반 해양로봇 및 장비 기술 개발, 3. 해양위성 시스템 및 핵심활용기술 개발 고도화>, 해양력 강화 <1. 해양방위 및 안전기술개발, 2. 해양 재해재난 피해 저감 기술 개발, 3.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함께 누리는 해양과학기술 세계를 누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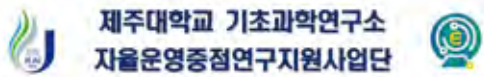


**교양교육의 정립과 교육적 실천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RILE)는 문명 전환기를 맞은 대학 고등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재성찰하고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를 마련하고자 2017년 설립됐다. RILE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 전공자가 균형 잡힌 비율로 포진해 있다는 강점으로 미래형 인재,



즉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인문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성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양학 연구에 매진했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융복합 교양 교과목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교양교육 관련 각종 국내외 학술행사 주최·주관, ▲교양교육 학술총서 발간 등에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2022년과 2023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세션을 개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융합교양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민교양강좌를 주최해 교양교육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본 연구소는 교양학 연구와 교양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청정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과학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자율운영중점연구지원사업단은 「제주 생물권 보전 및 청정환경 연구의 메카」라는 연구비전을 제시하여 '2019년 이공분야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소는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E-SAC 연구지원 프로그램 (Encouragement 연구역량 강화 활동지원, Support 기초과학 연구지원, Achievement 연구몰입 환경지원, Contribution 공공분야 연계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R&D 연구데이터(연구 논문 및 저서, 시민과학데이터, 산학연 연계 공공데이터 등)를 통합·관리·공유하는 이삭플랫폼(<https://esac.jejunu.ac.kr>)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소는 대학의 기초과학분야 연구거점으로써, 제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생형 가치 창출을 유도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소장 김명숙



### 아시아수생물학회(Asian Society of Hydrobiology)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24년 7월 1일 ~ 4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아시아수생물학회(Asian Society of Hydrobiology)는 1998년도 창립 이후 수생물학의 학문적 발전,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아시아권 수생물학 학회입니다. 여러 국가의 대표 수생물학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으며, 2년마다 국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될 The 6th Biannual ASH Conference를 통해 학문분야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생물학 분야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New Waves in Hydrobiology towards a Changing World"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에는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및 전 세계의 수생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AI workshop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아시아의 수생물학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야생식물 종자 보전과 활용을 선도하는 종자연구의 메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BDNA)은 2018년 '백두대간과 고



산지역 산림생물자원을 수집·보전·연구·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전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저장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기반으로 종자보전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BDNA는 종자연구의 메카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국가종자클러스터의 산림종자 거점은행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민참여예산인 「자생식물 종자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자생식물종자의 특성정보를 구축하여, 2025년 대국민에게 종자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DNA 종자보전활동은 국제적으로도 뻗어나가, 중앙아시아 4개국을 시작으로 서아시아 2개국까지 종자보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외국의 석학들과 함께 전 세계의 종 다양성 보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자 연구·보전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23 특별 기고

### 지구의 마지막 선물, 블루카본생태계(Blue Carbon Ecosystem)



제 11대 회장 장 만

최근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변동과 그 영향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파괴해 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속된 폭염은 대형 산

불을 유발하여 서울의 3배 정도의 지역을 전소시켰다.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그동안 겪지 못한 고온현상의 지속으로 빈번한 산불 발생과 함께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산업에조차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은 340메가톤 이상으로 추정,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

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나 하와이 비극적인 화재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로 볼 수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또 그런 이상 변화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인가에 대한 내용과 둘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악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대기, 해양, 극지방 및 고산지역 빙하, 생태계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2020)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 상승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410ppm)가 2백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지난 5년 동안(2016~2020) 기온은 18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최근의 이례적인 폭우, 가뭄, 대형태풍 및 예측불가의 최악의 기상이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이루어져도 2050년이 오기 전에 북극빙하가 한번쯤은 거의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다수의 환경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실제 빙하가 소멸되면 해양순환시스템(ocean circulation changes)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뒤따라서 예측 어려운 최악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리협약에서 결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해야만,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이나 최악의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1.5도 목표 달성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을 먼저 달성하고 이어 온실가스 흡수에 나서야 한



다. 최신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경우 탄소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대기 온도 상승 추세를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상기후변화 초래, 생지화학적 순환시스템 교란, 수자원 변동 및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늘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런 배출량의 감소나 흡수원의 확대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량의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방법과 영역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가 주는 선물인 “블루카본생태계(Blue Carbon Ecosystem)”의 영역인 것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해양생태계와 연안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말하며,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이 이런 역할을 하는 블루카본생태계 주요 구성원들이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둘러싼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이러한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열대우림에 비해 2~4배 정도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갯벌의 온실가스 자연 흡수량은 연간 약 1천7백5십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갯벌뿐 아니라 해조류 등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안생태계는 육상산림보다 면적은 좁지만 탄소흡수량은 비슷하고, 흡수속도는 최대 50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2009년에 국제연합(UN)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연구단을 발족하여 해조림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시작한 것이 관련된 초기 시도이고, 최근에 K공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블루카본생태계 확장 및 개발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증대와 경쟁력 강화의 선순

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연구의 첨병인 환경생물학회 회원들의 적극 참여 그리고 선도적 연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 학회회원동정

### 수 상



#### 고려대학교 조기중 교수

수 상 명: 제22회 관정동물학상

수상내용: 관정동물학상은 우리나라 생물학 분야의 선구자이신 관정 조복성 박사(1904-1971)의 학문적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유족이 회사한 기금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동물학 분야에 연구업적이 탁월한 분을 선정하여 2년마다 시상하는 관련학회 최고 권위의 학술상임.

수 상 일: 2023년 8월 10일



####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

수 상 명: 대한생식의학회 차학술상 수상(기초부문)

수상내용: 계명찬 교수는 올해로 4회를 맞는 차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51주년을 맞는 대한생식의학회는 생식생물학 및 생식의학 기초와 임상부문에 선견연구자를 해마다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계명찬교수는 정자와 환경호르몬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수 상 일: 2023년 11월 26일



### 고려대학교 배연재 교수

수 상 명: 고려대학교 교우회 학술상 (자연이공분야)  
 수상내용: 고려대학교 교우회 학술상은 모교 교수를 대상으로 분야별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정하여 교우회에서 시상하는 학술상이다. 배연재 교수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생생물 조사 발굴 연구단(2006~2023)”의 근충분야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진과 함께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근충 종의 25%에 달하는 5,225종(신종 1,264종 포함)의 국내 자생근충을 새로이 조사, 발굴, 기록하여 생물주권 확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근충의 복원 연구, 친환경적 모기방제 연구 및 국내 생태환경 기술의 해외 전수 등을 통하여 282편(SCIE 114편 포함)의 학술논문과 15권의 저서(공저 포함)를 출판하였다. 또한, 근충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 잡지인 Entomological Research의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국제 전문 학술 단체인 Asian Society for Hydrobiology의 창립에 기여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 학술 단체인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및 한국근충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총괄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관장을 역임하며 연구, 교육, 봉사에 뛰어난 기여를 하였다. 배연재 교수는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은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 상 일: 2024년 1월 5일



### 출 간

#### 한국거미도감

저자: (사)한국거미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故 김주필  
 발행: 2023년 4월



### 입 사

####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윤지남

2022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구두발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구두발표, 포스터발표를 통해 활발하게 학회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IOST 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주)지오시스템리서치로 입사해 사업타당성 검토, 신사업 개발,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KCI 1편 (한국환경생물학회), SCI 3편 작성 그리고 본 학회에서 학생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정년퇴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박사

2023년 10월 16일 30여년간 근무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년 퇴임.  
 명예연구원으로 위촉



### 별 세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故 김주필

1943년(황해도 연백 태생)~  
 2023년 9월 4일(향년 80세)





## ■ 2024 학회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 계획
임시총회		2024년 4월 예정
정기총회		2024년 10월 예정
이사회		필요시 개최
학술활동	춘계학술대회	2024년 4월 25~26일 예정
	정기학술대회	2024년 10월 예정
	학회지 발간	3, 6, 9, 12월말 (연 4회 발간) Scopus 등재 및 국제화 추진

## ■ 학회역사

1981. 03	한국환경생물학회 창립총회 개최 서울대 교수회관, 초대 회장 정영호 선출
1983. 09	환경생물 창간호 발간
1990 ~ 1991	제2대 회장: 최임순
1992 ~ 1993	제3대 회장: 윤일병
1994 ~ 1995	제4대 회장: 위인선
1996 ~ 1997	제5대 회장: 유광일
1998 ~ 1999	제6대 회장: 최신석
2000 ~ 2001	제7대 회장: 김주필
2002 ~ 2003	제8대 회장: 전계식
2004 ~ 2005	제9대 회장: 이성규
2006 ~ 2007	제10대 회장: 이진환
2008 ~ 2009	제11대 회장: 장 만
2010 ~ 2011	제12대 회장: 김진규
2012 ~ 2013	제13대 회장: 오희목
2014 ~ 2015	제14대 회장: 한명수
2016 ~ 2017	제15대 회장: 배연재
2018 ~ 2019	제16대 회장: 계명찬
2020 ~ 2021	제17대 회장: 최종순
2022 ~ 2023	제18대 회장: 조기종
2024 ~ 2025	제19대 회장: 김백호

## ■ 임원명단

임기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연번	직위	이름	소속
1	회장	조기종	고려대학교
2		김장서	상명대학교
3		김백호	한양대학교
4		김응빈	연세대학교
5		박상울	제주대학교
6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서경석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서종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안치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옥용식	고려대학교
11		이성은	경북대학교
12		이혁제	상지대학교
13		임은성	(주)아세아항측
14		진연선	한양대학교
15		채진호	해양환경연구소
16		최윤이	고려대학교
17	총무위원장	이두형	가천대학교
18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건	삼육대학교
19	재무위원장	남인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학술위원장	홍선희	한경대학교
21	학술부위원장	박익주	경북대학교
22	편집위원장	이혁제	상지대학교
23	편집이사	김용은	고려대학교
24	연구윤리위원장	용태순	연세대학교
25	포상위원장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6	ESG산학연위원장	옥용식	고려대학교
27	집행위원장	이강현	(주)마린액트
28	홍보정보위원장	신동만	KBS
29	환경다양성분과위원장	이황구	상지대학교
30	환경생태분과위원장	김장서	상명대학교
31	환경생태분과이사	주재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32	해양환경생물분과위원장	신현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3	해양환경생물분과이사	박범수	한양대학교
34	육상수자원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원남일	(주)지오시스템리서치
35	산림·토양·농업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천경식	상지대학교
36	산림·토양·농업환경생물 분과이사	김동욱	상지대학교
37	응용환경생태분과위원장	손진오	국립생물자원관
38	응용환경생태분과이사	최원균	국립생태원
39	응용환경생태분과이사	이도훈	국립생태원
40	생태독성 및 환경위해성 분과위원장	염동혁	안전성평가연구소
41	재난 및 유해 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서종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2	기후변화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서창완	국립생태원
43	ESG 선도분과위원장	계명찬	한양대학교
44	여성환경과학분과위원장	정현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5	환경신진인력분과위원장	이두형	가천대학교
46	감사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7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공지사항

### 환경생물 학회지 투고 안내

환경생물(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로 연 4회(3, 6, 9, 12월 말일)발행 하며, 저널 홈페이지(<http://www.ebr.or.kr/>)에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 창간호부터 가장 최신 논문까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seb.org>)을 이용하며, 심사료는 없습니다. 심사완료 후 최종 채택된 원고는 영문 제목/초록/표그림의 영문 교정서비스 무료제공 합니다.

### 회비납부안내

한국환경생물학회 회비를 안내합니다. 우리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하여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시에는 반드시 납부자의 성함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회 원 구 분	연 회 비
학생회원	30,000원
정회원	50,000원
평의원, 편집위원	100,000원
분과위원장, 이사, 감사	200,000원
부회장	300,000원
회 장	500,000원

예금계좌: 국민은행 461301-04-391535  
(예금주: 한국환경생물학회)

## 후 원



## 故 김주필(金胄弼) 교수

1943년(황해도 연백 태생) ~ 2023년 9월 4일(향년 80세)



“2022년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시어 “구양환경생물학상”을 제정해주신 김주필 교수님께서 향년 80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학문적 업적과 정신만큼은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 편히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필 교수님 감사합니다.”

[ 학력 ] 인천산곡국민학교(졸업)  
여주중학교(졸업)  
배재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동물학/학사, 석사)  
동국대학교(동물학/박사)

[ 경력 ] 주필거미박물관 관장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학과장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영석학원 재단이사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한국통합생물학회 회장  
한국동물분류학회 회장  
한국도양동물학회 회장  
한국생물종다양성연합회장  
한국과학문화교육 연합회장  
서울대학교총동창회부회장 등 역임

[ 도서 ] 한국거미도감(2023)  
(17권) 주홍거미 연구(2017)  
알면 유익한 자연의 세계(2016)  
타란툴라 키우기(2013)  
거미야 놀자(2012)  
거미생물학(2009)  
거미박사 김주필의 거미 이야기(2006)  
유용거미류(2003) 등

1943/2023

